

소라 *Turbo cornutus* SOLANDER의 增殖에 關한 研究-I

소라의 產卵과 初期發生

盧 鎧\*

(1976年2月25日 接受)

## STUDIES ON THE PROPAGATION OF TOP SHELL-I

Spawning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top shell, *Turbo cornutus* SOLANDER

Sum RHO\*

Fertilization and early development of *turbo cornutus* was studied based on the samples which were collected in Yeosu area.

Particular emphasis was paid on induction of artificial spawning, fertilization rate, preembryonic development, the growth of the early larva and larval survival to various salinity.

Among the various methods for induction of artificial spawning which have been tested for the present study, drying by exposure to air is the most efficient, and percentage fertilization rate was 83.8-96.4%. The diameter of fertilized eggs was  $0.182 \pm 0.0028\text{mm}$ ; and the diameter of egg membrane was  $0.245 \pm 0.0093\text{mm}$ . Under the temperature range of 20.6-25.4°C the larvae hatched out after 11:05-11:15 hours of fertilization. After 3.0-3.5 days of fertilization the planktonic larvae began to settle, and the settlement terminated within 5 days.

During the period of 150 days of early culturing the diameter growth of shell(M) and the diameter of shell aperture(A) was formulated as follows:

$$1972 \quad M = 0.33e^{0.02070D}$$

$$A = 0.19e^{0.02282D}$$

$$1973 \quad M = 0.32e^{0.02282D}$$

$$A = 0.16e^{0.02506D}$$

During the same period of early culturing the relative growth of shell diameter and the diameter of shell aperture was formulated as follows:

$$1972 \quad A = 0.6478 \quad S - 0.1575$$

$$1973 \quad A = 0.5897 \quad S - 0.0515$$

After 11 days of larval hatching 0.02-0.18% of planktonic larvae settled. After 150 days of settlement the survival rate of the early shells was 7.4-21.6%. Under the temperature range of 21.0-22.7°C the optimum salinity range for the development of egg and the planktonic larvae was 30-35‰.

\* 水産振興院 麗水分院,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Yeosu Branch.

## 緒 言

소라 *Turbo cornutus*의 產卵 및 発生에 대한 研究로서는 綱尾(1956)의 日本國 山口縣 吉見 부근에 棲息하고 있는 自然產 소라의 性成熟의 계절적 변화 및 成長에 對한 報告를 시점으로 阿井等(1964)은 海中에서 일어나는 產卵行動과 人為環境下에서의 관찰結果를 紹合하여 報告한 바 있고 阿井(1965), 土屋(1969)等은 人工產卵誘發에 의한 卵發生과 幼生의 發達經過에 對하여 比較的 詳細히 報告한 바 있다.

韓國產 有用貝類의 研究로서는 소라의 產卵에 關한 生태를 가진 전복에 對하여 朴(1969)의 增殖에 關한 研究와 盧等(1974, 1975)의 여수近海產 전복의 春季採苗에 關한 報告가 있을 뿐 소라의 種苗生產에 關한 資料는 찾아 볼 수 없다.

筆者는 1972年 6月부터 1974년에 걸쳐 室內水槽에서 干出刺戟 및 水溫上昇刺戟等에 依하여 數回에 걸쳐 受精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卵의 發生 및 初期幼生의 飼育過程에서 얻어진 몇 가지 結果를 여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試驗에 시종일관 助力하여 준 朴春奎, 金鎮玉 諸氏와 원고를 교람하여 주신 釜山水產大學 李澤烈博士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材料 및 方法

## 1. 產卵誘發 및 幼生飼育

試驗에 使用한 供試母貝는 1972~1974년의 5~7月 사이에 全南麗川郡 南面 소두리, 합구미, 개도(Fig. 1)等地에서 海女들에 依하여 採捕된 肝高 5.8~9.4cm範圍의 것을 產卵誘發用으로 使用하였다. 運搬된 母貝는 室內에서 플라스틱製 (內徑 69cm, 깊이 65cm) 圓形水槽에 30~50 尾씩을 收容한 후 미역 및 갈파래를 먹이면서 5~7일간 安定시킨 후에 產卵誘發刺戟을 試圖하였다.

產卵誘發方法은 干出刺戟 水溫上昇刺戟 生殖腺刺戟等을 每日 한가지씩 替り 실시하였다.

먼저 간출자극은 햇볕에서 1時間씩 노출시켰고 水溫上昇刺方法으로서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명한 날에는 온상水槽에서부터 內徑 5mm 되는 긴 비닐호스를 使用하여 日光에 依한 加溫을 시도하였고 흐린 날에는 室內에서 푸로판 개스를 利用하여 加溫시킨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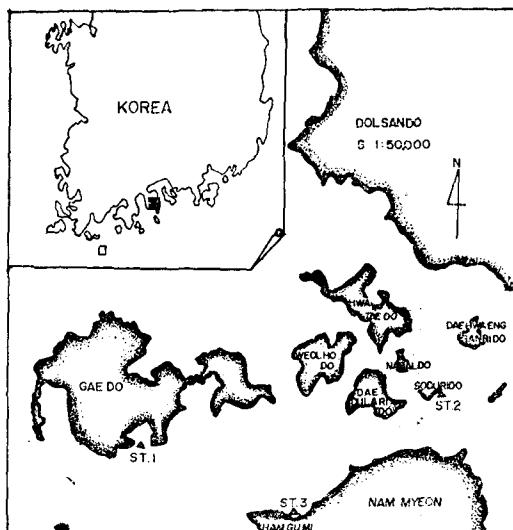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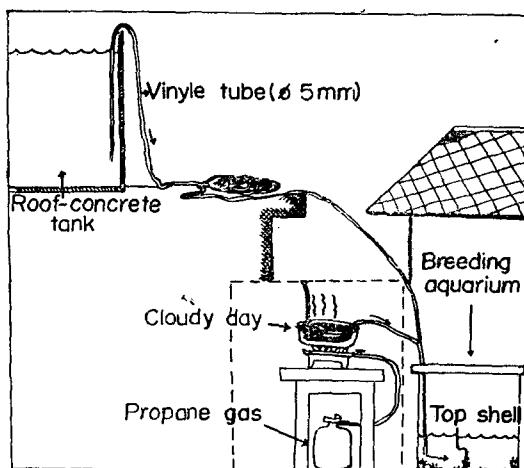


Fig. 2. Design of the stimulation of temperature systems used for the present experiment.

에 비닐호스를 침적시켜 海水가 이곳을 지나는 동안 4~5時間間에 水溫을 2~7°C 上昇시킨 후 30분간 정상해수로 流水시키는 過程을 1日 2~3回 반복하였고 또 生殖腺刺戟으로서는 成熟한 숫컷의 生殖巢 1~2個의 精子液를 만들어 產卵槽에 참가시켰다. 放卵 放精이 일어난 것을 確認한 後에는 產卵槽의 通氣를 中斷시키고 母貝를 除去한 後 卵이 底面에沈降하기를 기다려서 上騰液을 버리는 過程을 數回 반복하면서 洗卵한 후 孵化槽의 底面積을 넓히기 위하여同一한 크기의 水槽 3~4개에 分散시킨 후 通氣시켰으며 孵化된 幼生은 3.7×

1.  $65 \times 0.8m$ 의 콘크리이트水槽에 옮기고 포복기 유생으로 이행 할 때 까지 每日 飼育槽의 1/5 程度 되는 濾過海水를 보충시켜 주었고 採苗器의 수하방법 및 附着幼生以後의 飼育方法은 蘆等(1974)이 전述採苗에 使用하였던 方法에 준하였다.

孵化幼生에서 附着期幼生까지의 生殘率은  $30 \times 60 \times 30cm$  되는 四角유리수조와  $69 \times 35 \times 35cm$ 의 푸라스틱製水槽에 比較的 活力狀態가 좋게 보이는 Veliger 幼生 2,000~4,000尾씩을 收容한 후 11日만에 採苗器에 附着한 幼生의 全數를 計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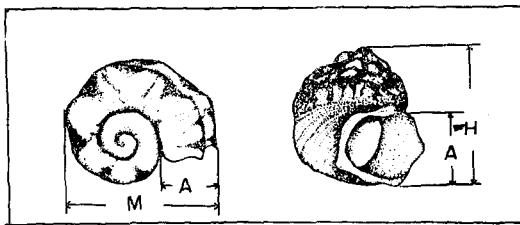


Fig. 3. Method of measurement of young top shell (left: below 3mm, right: over 3mm). M: Maximum shell diameter, A: Aperture diameter, H: Shell height.

소라의 크기는 通常殼高로 表示하지만 初期幼生에 있어서는 편의상 Fig. 3. 에서와 같이 3mm이내에서는 殼徑을 현미경 하에서 micrometer로 測定하였고 그以上에서는 Virnier caliper로 殼高를 測定하였다.

## 2. 鹽分濃度에 따른 알의 發生 및 浮遊幼生의 生長

사육수의 鹽分濃度가 알의 發生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正常海水에 淡水의 食鹽을 加하여 5~50% 범위에서 5% 간격으로 10단계의 濃度를 200ml 씩 만든 후 유리샤아레(D:15.5~2.5cm)에서 제1~2分割中の受精卵 50粒씩을 처리한 후 1, 2, 12, 24, 時間經過後의 發生狀態와 生殘率를 調査하였고 同一한 方法으로 初期 Veliger 幼生 20尾씩을 처리하여 1, 10, 24時間後의 狀態를 調査하였다.

卵과 幼生의 狀態 관찰은 위에서 定한 調査計劃時間에 따라 40倍 쌍안현미경 하에서 全數調査하였으며 完全히 發生이 정지되었다고 인정된 것과 原形質分離가 일어난 것은 별도로 收容하여 관찰하였다.

## 結 果

### 1. 產卵誘發 및 放卵, 放精

산란유발용 어미소라의 殼高組成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간출자극 6回, 水溫上昇刺戟 6回, 生殖腺침가자극 5回, 모두 17回의 산란유발자극을 試圖한結果大量의 受精卵을 얻을 수 있었던 方法은 간출자극에서 2回, 水溫上昇刺戟에서 1회 모두 3回였다.

간출자극과 水溫上昇刺戟에 依하여 放卵 또는 放精이 일어나기 까지의 過程을 보면 Fig. 5와 같다. 즉 1972年 6月 23日 기온  $22.2 \sim 22.4^{\circ}\text{C}$ 에서 60分間 공중 노출시킨 후 正常海水에 옮긴 約4時間만에 水溫  $20.6^{\circ}\text{C}$ 에서 1尾의 수컷이 放精을 시작하였고 열마후 2~3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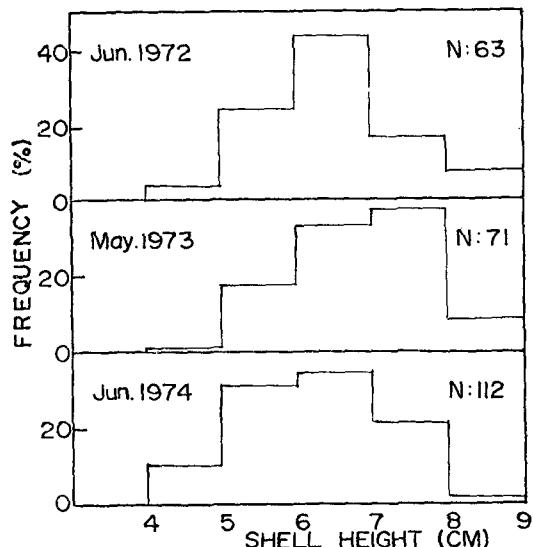


Fig. 4 Shell height composition of the top sh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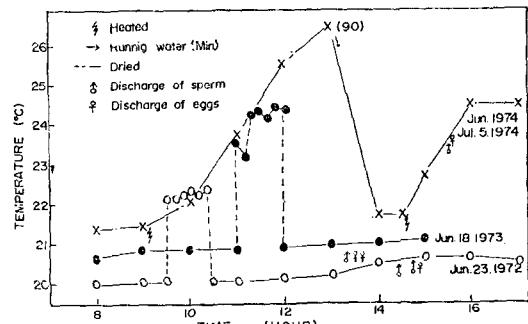


Fig. 5 Induced spawings of *Turbo cornutus* by the various stimulation methods.

의 암수개체의 동시방란방정현상이 일어났으며, 1973년 6월 18일에는 기온 23.3~24.5°C에서 60분간 간출시킨후 正常海水로 流水시킨 1時間 17分頃 水溫 21.0°C에서 슈컷의 放精이 일어났고 곧이어 2尾의 암컷이 放卵하는것을 볼수 있었다.

74년도의 경우는 前年에 비하여 다소 늦은 7月 5일 水溫 21.4°C에서 4時間 동안 2.6°C로 加溫시킨다음 正常海水로 1시간 流水시켜 21.7°C로 下降시켰고 다시 제2차 加溫을 시작한 約1시간後 水溫이 23.8°C로 상승되면서 放卵, 放精現象이 일어났다.

水槽內에서 소라의 산란행동은 大部分水面가까이 기어올라와서 알과 精虫을 噴射 시켰는데 관찰중 암컷은水面위 52cm 거리까지 噴射시키는것을 볼수 있었다(Pl. I, -A, B).

이와같은 噴射現象은 数分間隔으로 계속되어 完全히 放卵하기까지는 約30~40分間 소요되었으며 슈컷의 放精은 암컷에 比하여 더 짧은 時間間隔으로 噴射現象이 속행되어 噴射된 精虫은 차츰水中에 확산되었고 放精이 끝나기까지의 時間은 암컷보다 길어서 約1時間程度 계속되었다.

放出直後の 알은 弱한 附着性을 가지고 있어 水槽벽

이나 其他 固形物에 붙는것을 볼수있으나 aeration 등의水流에도 쉽게 脱落되는것을 볼수있었다.

3回에 걸쳐 産卵된 卵의 受精率은 1972年에 93.6%, 1973年에 96.4% 1974年은 83.8%로서 比較的 높은 受精率을 볼수있었다.

## 2. 卵割 및 初期幼生의 發生

放出된 알은 暗綠色을 띠운 球形으로서 雜리상 卵膜을 가진 分離沈性卵이다.

受精卵의 크기는 Table 1에서와같이 卵徑 0.182±0.028mm 卵膜徑 0.245±0.0093mm로써 卵表面과 卵膜과의 사이에 卵腔을 가지고 있었다(Pl. I, -C).

受精後 經過時間에 따른 卵割過程을 보면 Table 2와같이 水溫 21°C에서 受精後 35分만에 第1回 卵割을 마쳤고(Pl. I, -D) 1시간27分만에 第2卵割을 끝내었다(Pl. I, -E) 2시간 8分後에는 먼저 생긴 4개의 大割球위에 螺線狀으로 4個의 小割球가 形成되어 第3卵割을 마쳤으며(Pl. I, F) 이후 桑實胚期(Pl. I, G, H)를 거쳐 8시간 33分頃에는 原滌輪帶(prototrochal girdle)위에 發生한 纖毛를 움직여 卵膜內에서 胚의 回轉運動이始作되었다(Pl. I, -I).

Table 1. Comparison of diameter of fertilized egg in top shells, *Turbo cornutus*

Reference and Author	Present data (1972, 1973.)	Yosida (1964)	AI et. al. (1964)	Amio (1965)	Doya (1969)
Diameter (mm)					
Egg.	0.182±0.0028	—	—	0.21	—
Including egg membrane	0.245±0.0093	0.22-0.23	0.26	0.24	0.23

Table 2. Developmental stage comparison between top shells and abalonus

Reference and present data	Present data		AI	Rho et. al. <i>H. discus hannai</i> (May. 1972)
	<i>T. cornutus</i> (Jun. 23, 1972)	<i>T. cornutus</i> (Jun. 18, 1973)		
Stage				
Fertilized egg	0	0	0	0
First division (min.)	48	35	30	64
Second division (min.)	99	87	90	94
Fourth division (hour)	3.30	3.18	3.0	3.40
Gastrula stage (hour)	7.51	7.26	7.0	8.24
Trochophore stage (hour)	8.46	8.33	8.0	12.26
Hatched out (hour)	11.16	11.05	11.0	15.52
Shelled larvae in early creeping(day)	3.5	3.0	3.0	3-4
Formation of peristomial shell(day)	6	5.5	5	7-8
Range of water temp. (°C)	20.6-23.1	21.1-25.4	25-26	17.2-23.5

### 소라 *Turbo cornutus*의 增殖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卵膜內의 胚의 回轉運動은 차츰 더 活潑해졌으며 卵膜을 뚫고 처음 脱化된 Trochophore 幼生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산란후 11시간 5분이 經過한 때였다(Pl. I, -J, K). 脱化直後의 幼生은 주로 脱化槽의 底面에서 活動하고 있고 때때로 靜止하는 行動을 取하였다.

孵化後 3日째에는 頭部의 反對쪽에서 透明한 幼殼의 形成이 시작되었고 이의 內側에 内臟囊이 形成되면서 頭部가 分化하여 velum으로 되어 veliger 幼生에 들어갔다(Pl. II, -A).

孵化後 22時間後에는 幼殼의 形成이 完成되어 殼徑은  $0.273 \times 0.308\text{mm}$ 로 되고 velum의 바로 밑쪽에 足의 形態가 나타났다. 그 背部에 透明한 원반상의 뚜껑(operculum)이 보였으며 内臟部는 頭部와 足部를 그 位置로 둔채 肛門과 아가미가 前方으로 移動하는 torsion이 일어났다(Pl. II, -B).

孵化後 2日 午後에는 水槽內에서 veliger 幼生의 游泳層은 表層에서 차츰 底層으로 내려가면서 固形物의 表面을 포복하는動作을 取하였고 外部의 충격이나 자극을 받으면 殼口쪽에 뚜껑을 막으면서 물을 채빨리 貝殼 속으로 吸入하는 行動을 볼 수 있었다.

孵化後 4日째까지 飼育生活을 하면서 소라稚貝의 成長은 胚殼(protonotch)을 基點으로 하여 時計方向으로 右卷成長을 보였는데 Fig. 6에서는 附着初稚貝의 經過時間에 따른 殼徑의 成長과 縫合(suture) 및 黑斑의 形成數를 나타내었다.

胚殼을 基點으로 하여(Fig. 6-1) 貝殼의 成長에 따라 形成되는 螺層(cochlea)의 境界 即 縫合은 孵化後 10일째에 殼頂을 中心으로 1마퀴 반 程度 右卷되면서 殼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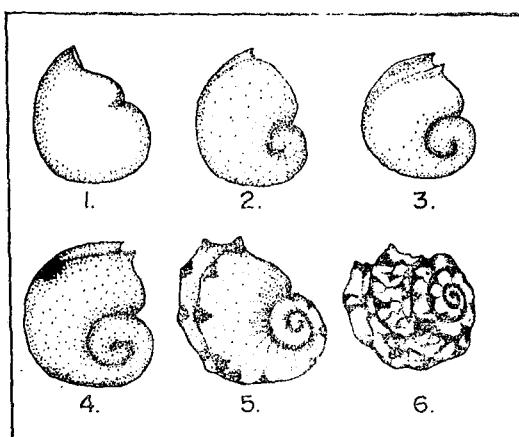


Fig. 6. Showing the formation suture and black mark according to the growth of top shell.

0.31mm로 成長하였고(Fig. 6-2), 16일後에는 殼徑 0.41mm로 되면서 거의 1, 3/4마퀴程度 右卷되었다(Fig. 6-3).

59日째에는 2마퀴를 약간 초과하여 右卷되면서 殼徑은 1.15mm로 成長하였고 殼의 背面에는 三角形에 가까운 最初의 黑色斑紋이 出現하였다(Fig. 6-4, Pl. II, -F, G)

72日後에는 殼이 2, 3/4程度 右卷되면서 殼徑 1.37mm에 達하였고 黑班의 數는 15個로 增加되었는데 뒤에 形成된 斑紋의 色彩는 暗黃褐色을 띠고 있었다(Fig. 6-5).

孵化後 89日째에 殼은 約4回程度 右卷하였으며 殼徑 2.6mm로 成長하였고 斑紋의 數는 18個로 增加하였다(Fig. 6-6).

90日後에는 殼徑 2.664~3.154mm에 達하였으며 最終 150日後에는 殼高 5.24~6.49mm로 成長하였다.

이 때 까지의 稚貝의 殼頂部는 成貝에서와 같이 突出되지 않고 대체로 偏平한 狀態로서 成長함에 따라 새로운 螺層에 形成되는 斑紋은 처음 殼頂部側에 먼저 形成된 斑紋과 不規則하게 연결된 狀態로 나타났으며 稚貝는 飼育槽內에서 연한 갈파래 및 창자파래와 미역의 幼葉을 稱이하는 것이 관찰되었다(Pl. II, -I).

사육기간中 經過日數에 따른 稚貝의 成長을 보면 Fig. 7에서와 같이 經過日數(D)에 따른 殼徑(S)와의 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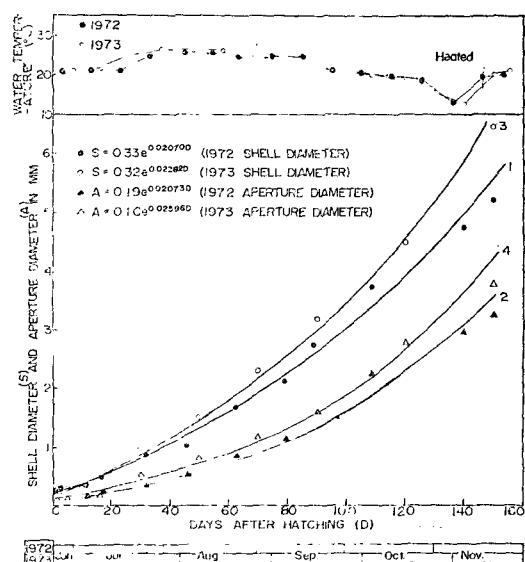


Fig. 7. Relationship between days(D) of rearing and shell diameter(S) of young top shell in the rearing aquarium,

長關係式은 1972년의 경우  $S = 0.33e^{0.02073D}$ , 1973년에는  $S = 0.32e^{0.02282D}$ 로 表示할 수 있었고 또 經過日數(D)에 따른 裝口經의 成長은 1972년의 경우  $A = 0.19e^{0.02073D}$ , 1973년에는  $A = 0.16e^{0.02596D}$ 의 指數曲線式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었다.

同期間中의 裝徑(S)와 裝口徑(A)와의 相對成長을 보면 Fig. 8에서와 같이 1972년에 있어서는  $A = 0.6478S - 0.1575$ , 1973년의 경우  $A = 0.5897S - 0.0515$ 의 回歸直線式으로 表示되었다.

飼育期間中の 소라 幼生의 發生段階別 生殘率을 보면 veliger 幼生에서 附着幼生으로 移行하는 부화 후 1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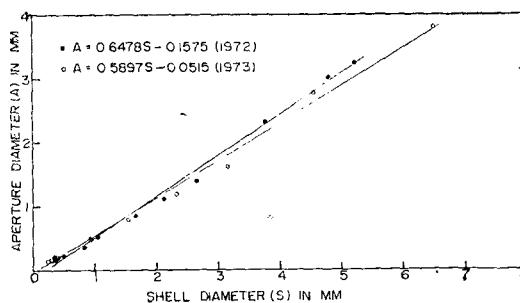


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shell diameter and the aperture diameter.

Table 3. The number of settling larvae of *T. cornutus* in the rearing aquariums

No. of vessel	1	2	3	4	5	Total	Average
Year	1972					1973	
Beginning date	Jun. 24	Jun. 24	Jun. 24	Jun. 19	Jun. 19		
Researched date	Jul. 5	Jul. 5	Jul. 5	Jun. 30	Jun. 30		
Number of veliger used	2,000	2,000	4,000	2,000	4,000	14,000	2,880
Number of collectors	10	10	20	10	20	70	14
Average number of settling larvae collector	7.2	13.6	36.2	3.9	17.4	78.3	15.66
Number of total settling young shells	72	136	724	39	348	1,319	263.8
Settling rate(%)	0.036	0.068	0.181	0.020	0.087		0.0942
Size of rearing aquarium (cm)	30×60×30	30×60×30	88×44×44	30×60×30	88×44×44		
Range of water temp. (°C)	20.8-23.7	20.7-23.7	20.6-23.6	21.7-25.2	21.4-25.0		
Range of salinity(‰)	30.19-32.36			32.71-33.14			

Note; Size of collector: 20×20cm

以內에 大量감모 현상이 일어나 소형수조에서의 경우 0.020~0.181%(平均 0.094%)의 저조한 생잔율을 볼 수 있었다(Table 3).

附着된 稚貝는 계속하여 감모가 일어나 裝經 2mm前後로 되는 孵化後約60일 사이에 부착된 치폐증 다시 32.4~67.3%의 높은 감모를 보였으나 그以後의 사육에서는 앞에서처럼 短期間에 發見된 大量감모현상은 볼 수 없었고 管理途中 採苗器에 미치는 충격이나 또는水面위에 採苗器를 露出 시켰을때 附着하고 있던 물을 움추려 貝殼內로 끌어 들이면서 사육조 지면에 脱落하는 個體가 많았으며 일단 脱落된 個體는 水槽底面에 쌓인 유기물의 찌꺼기나 기타 침전물등에 매몰된 채 離死하므로서 孵化 11日 以後부터 最終 飼育期間까지의 소라稚貝의 생잔율은 7.4~21.6% 범위였다.

### 3. 鹽分濃度에 따른 卵의 發生 및 浮游幼生의 生殘

水溫 21.0~22.4°C 범위에서 鹽分 32.74%되는 自然海水에 淡水와 食鹽을 加하여 鹽分濃度 5~50% 범위에서 5% 간격으로 10段階의 濃度區를 設定하고 각濃度별로 200ml 씩을 유리 샬아례( $\phi 15.5 \times 25\text{cm}$ )에 넣은 후 산란후 約 90分經과한 제2分裂中の 卵 50粒씩을 수용한후 경과시간에 따른 알의 상태를 Table. 4에 또 24시간후의 정상적인 부화율, 비정상적인 부화율 및 離死率을 Fig. 9-A에 각각 나타내었다.

各段階의 鹽分濃度별로 처리된 알을 現미경下에서 觀察한 狀態는 Fig. 10에서와 같이 10% 以下의 低濃度에서는 처리直後 곧 卵膜內의 알이 膨大하여 圖卵腔內에 充滿되면서 發生이 靜止된 채 차츰 原形質分離現象이 일어났고 15%에서는 非正常的인 狀態에서 어느程度 發生이 進行되다가 前者の 경우에 비하여多少 늦게 膨大現象이 일어나 차츰 發生이 靜止되었다. 또 45% 以上의 高濃度에서는 처리직후 심한 삼투압작용

소라 *Turbo cornutus*의 増殖

Table 4. The hatched out of the eggs of *Turbo cornutus* in the various salinities

Salinity (%)		5	10	15	20	25	30	32.77	35	40	45	50	
Time elapsed	Condition	N.	0	0	0	d. 12	d. 41	d. 49	d. 48	d. 48	d. 24	d. 3	0
1hr.	A.	0	0	d. m. 24	d. m. 31	d. m. 6	d. m. 1	d. m. 1	d. m. 2	d. m. 18	d. m. 16	0	
	D. r. c. 50	r. c. 50	r. c. 26	c. 7	c. 3	c. 0	c. 1	c. 0	c. 3	e. c. 31	e. c. 50		
	N.	0	0	0	d. 6	d. 34	d. 48	d. 48	d. 47	d. 11	0	0	
2hr.	A.	0	0	d. m. 10	d. m. 33	d. m. 11	d. m. 2	d. m. 1	d. m. 3	d. m. 26	d. m. 9		
	D. r. c. 50	r. c. 50	r. c. 40	c. 11	c. 5	c. 0	c. 1	c. 0	c. 13	e. c. 41	e. c. 50		
	N.	0	0	0	0	t. 6	t. 16	t. 13	t. 22	0	0	0	
12hr.	A.					h. 3	h. 30	h. 34	h. 25				
	D. r. c. 50	r. c. 50	m. r. 50	m. c. 31	m. c. 21	c. 1	c. 1	m. c. 1	m. c. 32	m. c. 50	e. c. 50		
	N.	0	0	0	0	h. 7	h. 45	h. 46	h. 43	0	0	0	
24hr.	A.					m. h. 6	m. h. 14	m. h. 2	m. h. 2	m. h. 5	m. h. 2	m. c. e. 50	
	D. r. c. 50	r. c. 50	m. r. c. 50	m. c. 43	m. c. 26	m. c. 3	m. c. 2	m. c. 1	m. c. 47				

Marks for the state are as follows:

Note 1. N: normal development; A: abnormal development; D: death; d: egg division; t: trophophore in egg membrane; h: hatched out larvae; m: malformed; r: expanded yolk; e: contract of egg membrane; c: collapse of cytoplasm

Note 2, Date: July 5, 1974 Number of eggs=50 each; Water temperature: 21.0-22.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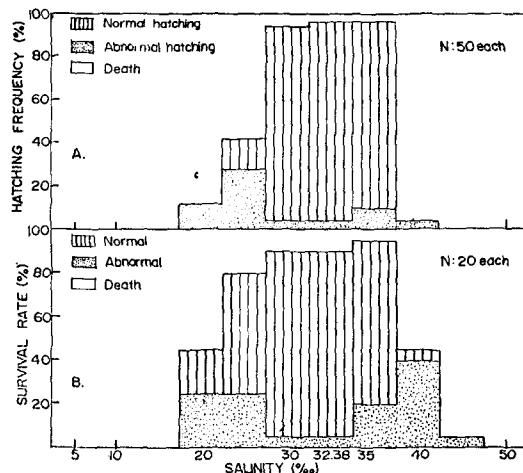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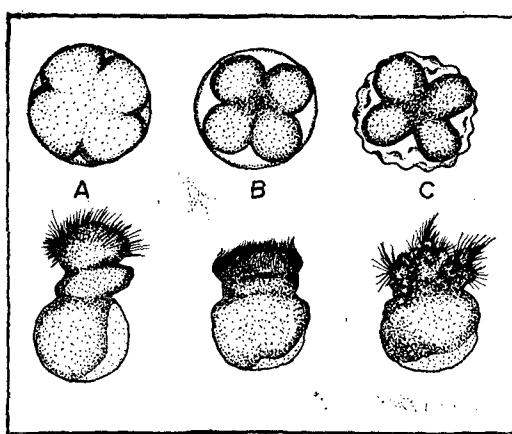


Fig. 9. Rate of hatching eggs (A) and survival rate of early veliger larvae (B) top shell exposed to various salinities in 24 hours.



Fif. 10. Showing the eggs and early veliger larvae in the various salinities  
A: bellow 15‰ B: Fresh seawater  
C: over 45‰

Table 5. Mortality of early veliger larvae top shell in water of various salinities

Salinity (%)		5	10	15	20	25	30	32.38	35	40	45	50	
Time elapsed	Condition	N	0	0	0	16	19	20	20	20	6	3	0
1 hour	N	0	0	0	16	19	20	20	20	6	3	0	
	C	0	0	0	0	0	0	0	0	3	7	9	

	盧				遜						
10 hour.	M	0	0	17	4	1	0	0	10	8	8
	D	20	20	3	0	0	0	0	1	2	3
	N	0	0	0	7	12	18	19	18	3	0
	C	0	0	0	2	3	0	0	1	2	2
	M	0	0	4	3	1	1	1	12	13	4
	D	20	20	16	8	4	1	0	3	5	9
	N	0	0	0	4	11	17	17	15	1	0
	C	0	0	0	2	3	0	1	2	2	1
	M	0	0	0	3	2	1	0	2	6	0
	D	20	20	20	11	4	2	2	1	11	19

Marks for the state are as follows:

Note. 1. N: normal swimming      C: collapse of cytoplasm and abnormal swimming

P: stop swimming but movement of cilia      D: Death.

Note. 2. Date: Jul. 5, 1974.      Number of veliger larvae: 20 each.      Water temperature: 21.2-22.7°C

에 依하여 卵膜의 수축現象이 일어나 卵膜表面이 凸凹상태로 變하였고 發生은 靜止된채 原形質이 포도상으로 分離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일의 發生 및 脱化가 가능하였던 鹽分濃度의 範圍는 20~40%였지만 正常脫化率이 높았던 鹽分濃度의 範位는 30~35%로써 이때의 正常脫化率은 50~52%였다.

水溫 21.2~22.7°C에서 앞의 方法과 同一하게 처리하였던 脱化後의 初期 veliger 幼生에 있어서의 經過時間別狀態를 Table 5에, 또 24時間 後의 生殘에 對하여 Fig. 9B에 각각 나타내었다.

各段階別의 鹽分狀態別로 처리된 veliger 幼生의 狀態는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以下의 低鹽分濃度에서는 投入即時 纖毛가 放射狀으로 扪摸하게 固定되면서 폐사하였고 15%에서는 몇몇 개체가 10%에서와 같은상태로 폐사하였고, 일부에서는 가사상태에서 数分經過後 미약한 심장박동에 따른 体表의 진동에 依하여 放射狀으로 굳어진 纖毛의 진동을 보이다가 20~30分後에 小數의 個體에서는 차츰 回復이 되는 것처럼 점차 不規則한 游泳活動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3~4時間後에는 다시 처리直후의 狀態로 되돌아가서 10時間後에는 全數薨死하였다. 40%의 高濃度에서는 처리 직후 低濃度에서와 같이 纖毛를 放射狀으로 直立한채 광분유영하는 개체가 많았고 1시간 후에는 다소 정상적인 游泳을 하는 소수의 個體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原形質分離現象이 일어나 포도상의 원형질 小粒子가 体表面에 密生된 채 기형적인 活動을 하거나 游泳을 정지한 채 纖毛만을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個體가 많았다. 鹽分濃度 45%以上에서는 40%의 경우보다 더 심한 原形質分離現象이 일어나 기형적인 個體數가 增加하였고 24시간후에는 1尾를 除外한 全數가 謫死하였다. 試驗途中 高濃度처리에서 活動中인 기형적인 個體

를 正常海水로 옮겨준 경우 生存時間은 다소 길어졌으나 飼育期幼生으로 移行하는 個體는 없었고 2~3일後에 全數가 謼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各階段의 鹽分濃度에 처리한 veliger 幼生이 24時間동안 生存할 수 있었던 鹽分濃度의 範圍는 20~40% 있고 正常의 人形유지와 安全飼育이 可能하였던 範圍는 25~35%였다.

## 考 察

소라와 비슷한 生態를 가지고 있는 전복類에 있어서 水溫, 干出, 生殖巢等의 刺戟으로 산란유발이 可能하다는 것은 猪野(1952, 1966), 菊地(1963)等에 依하여 비교적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嶋等(1974)도 報告한 바 있다.

소라의 產卵誘發에 對하여 阿井(1965)는 水溫 24~26°C의 정상海水를 30~40分間에 28°C까지 上昇시 키는 溫度刺戟에 依하여, 또 土屋(1969)는 飼育管理中 水質, 水溫, 干出 物理的인 刺戟等을 母貝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每日 연속적으로 反復하여 大量產卵이 可能하였음을 報告한 바 있다. 本調査에서 干出刺戟의 경우 전복에 比較하여 다소 진 1시간 程度 日光下에서 노출시켰고 水溫上昇刺戟은 阿井(1969)에 比하여 다소 완만한 4~5시간 동안에 2~7°C를 上昇시켜 良質의 受精卵을 얻을 수 있다.

소라의 產卵期에 對하여 網尾(1956)는 日本國 山口縣 吉見에서 調査한 소라의 生殖巢熟度의 發達은 5~8月頃에 혈저하여 主로 夏季에 產卵이 일어날 것으로 推定하였고 伊豆半島南部에서 調査한 阿井等(1964)과 野中(1968)는 7月中旬 前後의 沿岸水溫 20°C에서 25°C前後로 急上昇하는 時期와 一致하였다고 하고 있다,

## 소라 *Turbo cornutus*의 増殖

본시험의 경우 실내에서 産卵이 일어났던 時期는 1972, 1973年에는 거의 비슷한 6月 23日 水溫 20.6℃에서와 6月 18日 水溫 21.1℃에서 였고, 1974年에는 앞에서 보다 다소 늦은 7月 25日 水溫 23.8℃에서 産卵이 일어나 網尾 및 阿井等(1964)의 報告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라의 受精卵의 크기에 대하여 吉田(1964)와, 土屋(1969)는 卵膜徑 0.22~0.23mm, 阿井(1965)는 0.26mm 網尾(1956)는 0.24mm로 研究者에 의하여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筆者の 경우 0.245±0.0093mm로서 個体에 따른 差를 감안하면 모두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産卵以後 卵에서 周口殼形成까지의 初期發生時間에 대하여는 阿井(1965)는 水溫 25~26℃에서 産卵後 30分만에 第1分裂이 일어났고 8時間後에는 卵內 trochophore 幼生으로 되어 11時間 만에 脱化하였으며 5日만에 周口殼이 形成되었다고 報告한데 비하여 본 조사에서는 1972年에는 水溫 20.6~23.1℃範圍에서 産卵後 48분後에 第1分裂을 마쳤고 8時間後에 卵內 trochophor 幼生으로 되었으며 周口殼形成은 6日째에 볼 수 있었는데 1973년의 水溫 21.1~25.4℃에서는 천년에 비하여 다소 빠르나 阿井(1965)의 結果보다는 약간 늦은 5.5日만에 周口殼形成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同一種에서 나타난 發生速度의 差異를 다른 海產動物의 發生에서와 마찬가지로 發生當時의 水溫條件와 關係가 깊을 것으로 料되었다.

附着幼生以後의 成長과 黑斑의 形成에 對하여 阿井(1965)는 受精後 12日째에 殼徑 0.38~0.39mm에 達하였고 60日째에는 殼徑 1.3mm로 되면서 殼의 外周에 黑斑이 인식되었고 80日째에는 殼徑 2mm로 成長하면서 黑斑은 8개가 나타났고 100일 째에는 殼徑 3mm에 達하면서 黑斑은 12개로 增加하였다고 報告한데 비하여 본 조사에서는 脱化後 10일째에 殼徑 0.31mm로 成長하였고 5.9日째에는 殼徑 1.15mm로 되면서 1개의 黑斑의 出現 하였으며, 72일후에는 殼徑 1.97mm로 되면서 黑斑은 15개로 增加하였고 90日경에는 殼徑 2.66~3.15mm內外로 되면서 黑斑은 18개로 增加하였으며 最終 150日째에는 殼高 5.24~6.49mm에 達하여 殼徑의 成長은 阿井(1965)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最初의 黑斑이 나타난 稚貝의 크기에 對하여 網尾(1956)는 5月中旬에 採集된 自然稚貝에서 殼幅 0.8mm程度라고 지적하였으나 稚貝生產過程에서 調査한 阿井(1965)와 이번 조사에서의 結果보다 黑斑의 出現時期가 빠른편이었고 또 阿井(1965)의 結果에 비하여 필자의 경우 最初의 黑斑은 더 빨리 나타났으며 成長에

따른 出現數도 다소 差가 있는데 이것은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 외에 환경요인이나 이료등에 依한 個體間의 差異에서 기인된 것으로도 생각되나 今後 보다 具體적인 조사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다. 稚貝生產過程中의 稚貝의 生殘에 對하여 阿井(1967)等은 浮游幼生에서 33日間 飼育한 結果 0~0.030%의 生殘을 報告한 바 있으나 筆者の 금반조사에서는 浮游幼生에서 11日間 사육에서 0.620~0.183%의 生殘을 볼 수 있었고 附着幼生 以後 約60日間 飼育(殼徑 2mm內外)에서는 32.4~67.3%의 높은 生殘率를 볼 수 있어 阿井(1964)等의 結果와는 우선 조사간격이나 方法에 差異가 있어 正確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부유유생에서 附着生活로 들어 갈 무렵에 大量 生殘率를 發生하였던 것은 거의 一致되고 있다. 따라서 이時期는 盧(1974)等이 전복생산과정에서 浮游幼生으로부터 附着幼生으로 들어가는 條件은 海產魚類稚貝生產過程中에서 볼 수 있는 所謂 critical period와 비슷하였다고 지적한同一時期로 생각된다.

卷貝類의 初期幼生의 飼育環境中 好適鹽分濃度를 조사한 보고로써 猪野(1952)는 씨이볼트전복 *H. sieboldii*의 veliger 幼生의 適鹽分濃度範圍는 24.1~36.3%였고 특히 30.8~36.3%의 涼度가 好適하였다고 指摘한바 있다. 금반 조사한 소라의 卵發生이 可能하였던 涼분농도의 涼度는 25~35%였고 호적 涼분농도는 30~35%의 涼度였으며 veliger 幼生의 24時間동안 生存이 가능하였던範圍는 20~40%였고 好適鹽分濃度는 30~35%로써 대체로 猪野(1952)가 報告한 씨이볼트 전복에서 조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 要 約

1972~1974年 5~7月에 여수근해산 소라 *Turbo cornutus* 를 材料로 하여 産卵誘發刺戟, 受精率, 卵發生 幼生의 成長 生殘率 및 發生初期幼生의 涼분농도 등에 대하여 調査하였으며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산란유발 방법으로 간출자극, 가온자극, 정자액침가동의 方法을 每日변갈아 17회 實施한 結果 간출자극에서 2회 加溫자극에서 1회의 방란 방정이 일어났고 이 때의 수정율은 83.8~96.4%였다.
- 수정 난의 난경은 0.182±0.0028mm였고 난막경은 0.245±0.0093mm 있다.
- 초기유생의 발생과정은 水溫 20.6~25.4℃ 범위에서 11.05~11.15 시간후에 부화하였고 3.0~3.5日後에 附着이 始作되어 5日後에 完了되었다.

## 盧 邊

4. 부착된 幼生의 성장은 부화 10일後 裸徑 0.31mm, 59日後 1.15mm, 72日後 1.97mm, 90日後에는 2.66~3.15mm, 150日後에는 각고 5.24~6.49mm로 각각 成長하였다.

5. 부착치의 부화 후 150日間의 飼育에서 經過日數 ( $D$ )에 따른 裸徑 ( $S$ ) 및 裸口徑 ( $A$ )의 成長關係式은

$$1972 \text{ 年 } S = 0.33e^{0.02010} D$$

$$A = 0.19e^{0.02073} D$$

$$1973 \text{ 年 } S = 0.32e^{0.02282} D$$

$A = 0.16e^{0.02598} D$ 의 지수곡선식으로 각각 表示되었다.

6. 부화후 150日까지의 각경 ( $S$ )과 각구경 ( $A$ )과의 상대성장식은

$$1972 \text{ 年 } A = 0.6478S - 0.1575$$

1973年  $A = 0.5897S - 0.0515$ 의 회귀직선식으로 表示되었다.

7. veliger 幼生의 부화 11日後의 着生率은 0.020~0.181% 있으며 附着以後 150日 동안의 生存率은 7.4~21.6%였다.

8. 수온 21.0~22.7°C에서 알과 浮游幼生의 發生 및 生殘에 適當한 鹽分濃度의 범위는 30~35%였다.

## 文 献

網尾 勝(1956) : サザエ *Turbo cornutus* SOLANDER

の成長並びに棘の成長に就いて. 農林省水講研報, 4(1), 57~68.

阿井 敏夫・野中 忠・佐佐 木正(1964) : サザエの 産卵

と發生—I, 産卵 行動觀察の一例. 日水誌, 30 (10), 828~830.

阿井 敏夫(1965) : サザエの産卵と發生-II 産卵誘發と 幼生發達. 日水誌, 31(2), 105~112.

土屋 文人(1969) : サザエの人工採苗と成長. 養殖, 9, 87~90.

猪野 駿(1952) : 邦産 アワビ屬の増殖に關する生物學的研究. 東北區水研報, 5, 1~24.

———(1966) : アワビとその 増養殖, 水產增殖叢書 11, 1~103. 日本水產資源保護協會

菊地 省吾・浮泳 久(1974) : アワビ屬の採卵技術に關する研究, 第1報 エゾアワビ *H. discus hannai* INO の性成熟と溫度との關係. 東北區水研報, 33, 69~78.

野中 忠(1968) : サザエの種苗生産と 增殖, 養殖, 5, 64~67. 緑書房

盧 邊・朴春奎・卞忠圭(1974) : 전복의 增殖에 關한 研究(I). 麗水近海產 전복 *H. discus hannai* INO의 출체채묘에 關하여. 水振研報, 13, 77~92.

盧 邊・朴春奎(1975) : 전복의 增殖에 關한 研究(II) 麗水近海產 한전복 *H. discus hannai* INO의 產卵期. 韓水誌, 8(4), 234~241.

卞忠圭(1969) : 전복의 增殖에 關한 研究. 韓水誌, 3(3), 177~186.

吉田 裕(1964) : サザエ. 貝類種苗學, 183~184. 北隆館,

## EXPLANATION OF ABBREVIATIONS

a: adult shell

m: mouth

c: cephalic tentacle

o: operculum

e: egg

p: peristomal shell

ey: eye

s: sperm

f: food

v: velum

l.s: larval shell

p.g: prototrochal girdle

## EXPLANATION OF PLATES

### Plate I

- Fig. A. Jetted the eggs on wall of breeding aquarium.  
Fig. B. Jetted egg(enlarge)  
Fig. C. Fertilized egg. Diameter including membrane is 0.245mm and yolk 0.182mm.  
Fig. D. 2 cell stage, 35 minutes after fertilization.  
Fig. E. 4 cell stage, 1 hour and 37 mimutes after fertilization.  
Fig. F. 8 cell stage, 2 hours and 8 minutes fertilization.  
Fig. G. 16 cell stage, 3 hours and 18 minutes after fertilization.  
Fig. H. Animal pole view 16 cell stage.  
Fig. I. Trochophore stage hatching. 8 houre and 33 minutes after fertilization.  
Fig. J. Just after hatched out, 11 hours and 5 minutes after fertilization.  
Fig. K. Swimming trochophore larvae. later 1 hour after hatched out.

### Plate II

- Fig. A. Early veliger stage began to secrete the larval shell, 3 hours after hatched out.  
Fig. B. Veliger stage after torsion, 22 hours after hatched out.  
Fig. C. Early creeping stage. 61 hours after hatched out.  
Fig. D. Do. dorsal view.  
Fig. E. Elongated peristomial shell, 20 days after hatched out shell diameter 0.25mm.  
Fig. F. Appearance one black mark on the shell surface, 59 days after hatched out,  
diameter of shell 1.148mm(dorsal view)  
Fig. G. Do. ventral view.  
Fig. H. Young having not a spine but 10 balck marks on the shell surface.  
68 days after hatched out, diameter of shell 1.824mm.  
Fig. I. Young shells on the sea-lattuce, *ulva lactuca* in the rearing aquarium.

Plat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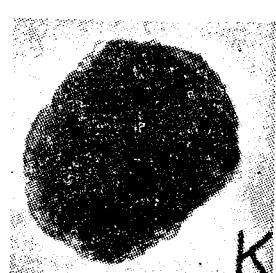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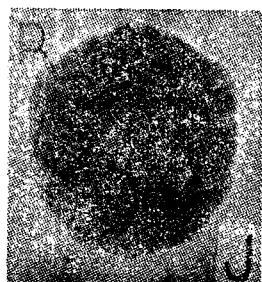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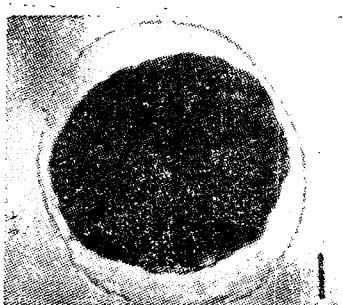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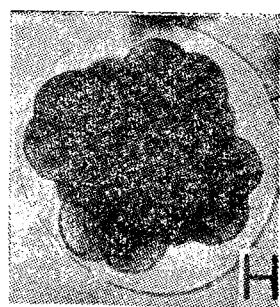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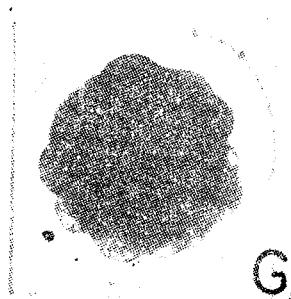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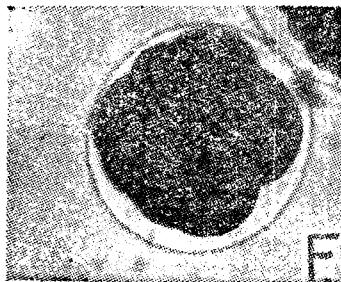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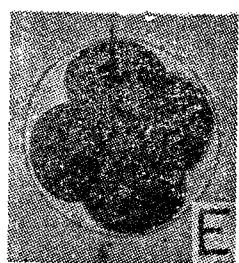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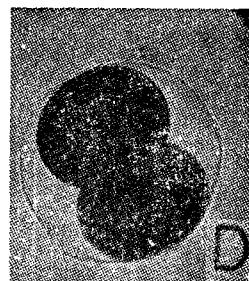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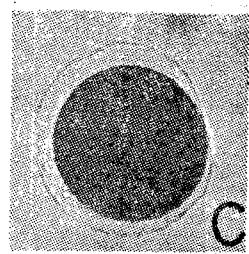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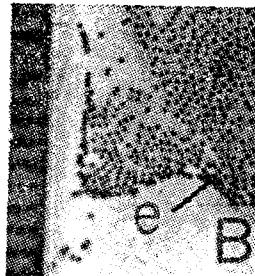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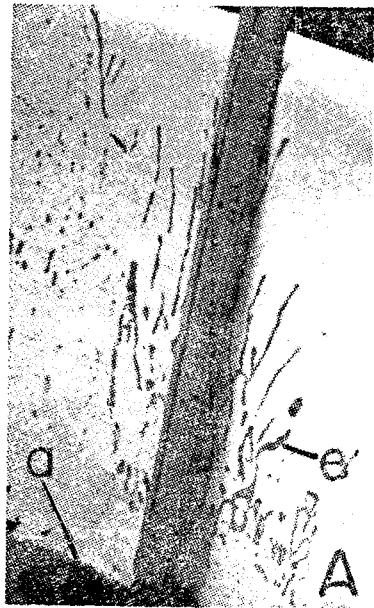


Plate Ⅱ

